

(Malachi 1:1-8; 2:10-16; 3:6-4:6; Matthew 11:7-15)

Starting and finishing well are very important. To have maximum impact on its audience, a speech, for example, requires an effective beginning and end. God's revel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Old Testament, opens with the account of how he powerfully created all things by his word. He said, at the beginning, that it was very good. However, the ending of this story, as we come to Malachi, the last book of the Old Testament, is not so good. God continued faithfully committed to that which he had made. He remained true to his promises to his people – but, unfortunately, they were faithless, they were manipulative and they had tired of him.

시작과 끝맺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설의 경우, 청중들에게 극대화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시작과 끝맺음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시작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그의 말씀대로 강력하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는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서인 말라기에 이르러,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실하게 그가 창조한 것들에 대해 계속해서 헌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가 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셨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고, 영악하며, 하나님께 싫증을 느꼈습니다.

But God knew that a small remnant would continue to be faithful. Malachi is really only the end of the beginning – for God has promised a bright future for this remnant. They are to remember what pleases him and they are to repent. God looks for true worship from his people – spiritual worship, which involves being living sacrifices to God. Such a transformation comes about by renewal of the mind and involves non-conformity to the pattern of the world. The fruit of such worship is knowing the will and purpose of God and joyfully doing it.

그러나 하나님은 적은 수의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신실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남은 자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말라기서는 그 시작됨의 끝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부터 진실한 예배 – 그들이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것을 수반한 영적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이러한 완전한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일어나며, 세상의 패턴에 순응하지 않는 것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것이며, 기쁘게 이를 행하는 것입니다.

A careful reading of this book indicates that in Malachi's day the temple was apparently rebuilt (1:13; 3:1,10) which places him after Haggai and Zechariah. Also the Jews were under a civil ruler (1:8), which places him before the death of Nehemiah, who was the last civil ruler. Finally the offenses rebuked by Malachi are precisely the abuses Nehemiah corrected, namely, the practice of mere formal religion, mixed marriages, and the neglect of tithes. Malachi's ministry bears the same relationship to Nehemiah as Haggai and Zechariah's ministries bore to Zerubbabel and Joshua. Malachi returned to Judah from Persia between about 432 BC and 422 BC. Consequently, Malachi prophesied 100 years after Haggai and Zechariah.

이 말라기서를 주의깊게 읽으면, 학개와 스가랴 후에 있던 말라기 때에 성전이 재건된 듯 보입니다(1:13; 3:1,10). 또한 유대인들이 민간 통치자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1:8), 그는 마지막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죽기 전 시대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가 꾸짖은 범죄들은 정확히 느헤미야가 바로잡았던 악폐들, 즉, 단순한 형식적 종교의 실천, 잡혼 문제와 십일조의 도외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이 스불론과 여호수아와 갖고 있던 것과 같은 관계를, 말라기의 사역은 느헤미야와 갖습니다. 말라기는 기원전 약 432 년과 422 년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말라기의 예언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100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Malachi's prophecy records a dialogue between God and his covenant people. Indeed Malachi records six conversations, all of which revolve in some way around the theme of the covenant, by

(Malachi 1:1-8; 2:10-16; 3:6-4:6; Matthew 11:7-15)

which God binds Israel to himself and himself to Israel. In the first three conversations (1:1-2:16) God's people question his love and in the second three conversations (2:17-4:4) they question his justice. It is like eavesdropping on a conversation of vital importance. We are able to draw conclusions about the character and concerns of each participant. One partner, God, the Lord Almighty, is unchanging and faithful but will not allow himself to be used. The other partner, Judah, God's people, has grown weary of God. They are faithless, contemptuous and unthinkingly manipulative of him. Eight times we find "he (God, the Lord Almighty) says.....but you (God's people) ask HOW?" (1:2, 6,7; 2:17; 3:7,8) or "but you ask WHY....?" (2:13-14) or "but you ask WHAT...?" (3:13). In this respect, perhaps more than any other Old Testament book, Malachi describes that modern attitude of mind that considers man superior to God and that has the audacity to attempt to bring God down to earth and measure him by the standards of human morality and justice – if they do not want to do away with God entirely. Yet Malachi hits even closer to home than this. He not only describes the secular world of our age, but also the secular church (of which we can often be unfortunate examples) – boasting in their knowledge of truth, responding to that knowledge mechanically, technically, but their hearts, their lives, their characters have been a contradiction to the will of God. Or as Paul puts it in his second letter to Timothy: "having a form of godliness but denying its power" (2 Timothy 3:5).

말라기의 예언은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백성들간의 대화를 기록합니다. 말라기는 6 개의 대화를 기록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구속되게 하시고, 스스로를 이스라엘에 구속하시어, 모든 대화의 어땝게든 언약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게 됩니다. 처음 세개의 대화에서(1:1-2:16),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사랑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나머지 세개의 대화에서(2:17-4:4),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이는 마치 지극히 중대한 대화를 엿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대화 참여자들의 특징과 관심사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한 참여자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와는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지만, 스스로가 이용되도록 허락치 않으실 것입니다. 다른 참여자인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하나님께 싫증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고, 그를 업신여기며, 지각없이 그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8 번에 걸쳐 "그가(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하나님의 백성) 어떻게?"(1:2,6,7; 2:17; 3:7,8) 또는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2:13-14) 또는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으로...?(3:13)라는 구절을 발견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말라기는, 아마도 구약의 다른 어떤 서들 보다도, 하나님보다 인간이 뛰어나다고 여기는 생각과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지상으로 끌어내려 인간의 도덕과 정의의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고자 하는 뻔뻔한 생각에 대한 현대적 태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심지어 이보다 더 정곡을 찌릅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세속적인 세상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교회(흔히 우리가 유감스러운 사례가 될 수 있는)를 묘사합니다 – 진실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한 지식에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응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삶, 성품은 하나님의 뜻에 모순되는 교회에 대해 서술합니다. 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번째 편지에서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딤후 3:5).

### 1. Conversations 1-3: God's People Question His Love (1:1-2:16)

In the first set of 3 conversations, God's love is doubted. God states his love for his people in vv.2-5 of chapter 1, but they doubt his love: "How have you loved us?" His love was proven by his electing Judah, the descendants of Jacob, as his people. God chose Jacob but not his brother Esau. Esau's descendants, the nation of Edom, were under his wrath (1:4). We remember from Obadiah that God had prophesied a future destruction of Edom for its pride and the accompanying unbrotherly conduct toward the citizens of Jerusalem in the day of their misfortune, when besieged by the Babylonian army. This judgment had apparently come to pass by this time and is here declared by God to be permanent. Judah equally deserved God's wrath, but they were his chosen ones and therefore he loved them.

(Malachi 1:1-8; 2:10-16; 3:6-4:6; Matthew 11:7-15)

**1. 1-3 번째 대화: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사랑에 대해 의문을 가지다(1:1-2:16)**

처음 세개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받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1 장 2-5 절에서 서술하지만, 백성들은 그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가 유다, 야곱의 자손들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심으로 그의 사랑은 증명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으나, 그의 형제인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서의 자손들, 에돔은 그의 진노를 받았습니다(1:4). 우리는 오바다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자만과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었던 재앙의 날에 그 백성들에게 행한 형제답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향후 에돔의 파멸을 예언하셨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당시에 이 심판이 있었던 듯하며, 하나님에 의해, 여기 이 심판은 영구적임이 선포됩니다. 유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The first conversation continues with the Lord Almighty asking how they have shown their love for him. He says, “Where is the honour and respect you owe me? I am your father, your master” (1:6-14). The priests show contempt for God’s name by offering sacrifices which are blemished, which cost them nothing and which they would not think to offer even to the governor (1:8). Although God is the Lord of the nations, he is treated with contempt by his own people. It would be better to shut the temple doors “so that you would not light useless fires on my altar” than to offer God injured, crippled and diseased animals (1:13).

첫번째 대화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보였는지를 묻는 것으로 계속됩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아버지, 주인인 진대, 나를 공경함이,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1:6-14) 제사장들은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려, 값어치가 없는 제물을 드려, 총독에게도 주려하지 않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1:8).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심에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괘시를 당합니다.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흠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봉헌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1:13).

In the second of three conversations God turns his attention to the priests (2:1-9). He reminds them of his covenant with Levi, the head of the priestly tribe. God promised Levi life and peace and Levi in turn was to revere God and offer true instruction to the people (2:5-6). But the priests violated that covenant and caused many to stumble. Because they judged with partiality, they would now be despised and humiliated (2:8-9). The perilous state of Judah was largely to do with the state of her priestly leadership. The priests should have been serving the nation through reverence for God and faithful communication of his word to his people – they were the messengers of the Lord Almighty. Instead, they were faithless to the covenant. This disloyalty to the covenant also showed itself in faithlessness to one another. The priests were leading the people – their fellow Jews – astray and causing them to stumble.

세 대화의 두번째 대화에서, 하나님은 그의 주의를 제사장들에게 돌리십니다(2:1-9).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제 지파의 수장인, 레위와 세운 그의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레위에게 생명과 평강을 약속하셨고, 결과적으로 레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백성들에게 진리의 법을 알려야 했습니다(2:5-6). 그러나 제사장들은 이러한 언약을 어겼으며, 많은 이들의 실족을 초래했습니다. 그들이 편파적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2:8-9). 유다의 아주 위험한 상태는 그들의 사제적 지도력의 상태와 큰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함으로써 나라를 섬겨야 했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에 대한 불성실함은 또한 서로에 대한 신의없음에서 나타났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 - 그들의 유대 동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율법을 거스르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Malachi 1:1-8; 2:10-16; 3:6-4:6; Matthew 11:7-15)

The third conversation in the first set makes it clear that all Judah shared in knowing God as their Creator and covenant keeper. “Why do we profane the covenant of our fathers by breaking faith with one another?” (2:10b). They had stopped being faithful to the wives of their youth and married foreign wives instead (2:11,14). By joining in such intimate union with foreign wives they had broken faith with God and with one another. “I hate divorce” says the Lord God of Israel” (2:16a). Why does God hate divorce so fiercely? Well, for a start, it is a matter of a man and a woman breaking faith with his or her spouse. God, who is a God of faithfulness and truth, hates infidelity. The marriage vow speaks of union “for better for worse, for richer for poorer, in sickness and in health”. We cannot guarantee anyone happiness, we cannot guarantee affluence or health. But we can guarantee that we will stick by our word, our vow, that we will not break faith just because fidelity is difficult or because another way or person becomes more attractive. Second, God hates divorce because it is harmful – harmful to the couple involved, generally leaving scars that never truly heal; harmful to society; and above all harmful to whatever children may be involved. In the final analysis, however, God hates divorce because it represents covenant faithlessness. God created marriage to illustrate the most blessed of all spiritual relationships – the union of a believing man or woman with Christ, the divine bridegroom of the church. Divorce must therefore illustrate the falling away of a man or woman from God. Twice Malachi urges the people, “So guard yourself in your spirit, and do not break faith with the wife of your youth” (2:15,16). God is supremely faithful. Indeed Calvin says that God’s faithfulness is “the primary axiom of the whole Christian philosophy”. God keeps his covenant with his people and expects covenant faithfulness from them. Faithfulness to God and one another is the hallmark of the people of God and constitutes true worship. As you interact with people – church, family, friends and work colleagues – can you identify areas where you need to repent of unfaithfulness?

세번째 대화에서 모든 유다가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자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알고, 이를 공유했음은 분명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2:10b) 그들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았으며, 대신 이방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이방 아내와의 이러한 긴밀한 결합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과 서로 간에 거짓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기를 “나는 이혼을 미워하노라”(2:16a). 하나님께서는 왜 이혼을 지독히도 싫어하실까요? 먼저, 이것은 남녀가 서로의 배우자에게 신의를 저버리는 문제입니다. 신실함과 진리의 하나님은 불륜을 싫어하십니다. 결혼 서약은 “좋은 때나 낫을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의 결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고, 부유함 또는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지조를 지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또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에게 더욱 관심이 간다는 이유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약속, 우리의 서약을 지킬 것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것이 해롭기 때문에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 이를 겪는 부부에게 해로우며, 일반적으로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상처를 남기고, 사회에 유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관된 모든 아이들에게 해가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언약이 불충실함을 대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적 관계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을 보여주기 위해 결혼을 창조하셨습니다 – 이는 믿음이 있는 남자 또는 여자와 교회의 신성한 신랑인 그리스도와 의 결혼입니다. 때문에, 이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남자 또는 여자가 멀어짐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말라기는 사람들에게 두 번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라”(2:15,16). 하나님은 지극히 신실하십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신실함은 “전체 기독교 철학의 주된 공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시며, 그들에게 언약에 충실함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과 서로에게 신실함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며, 참된 예배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 교회, 가족, 친지와 직장 동료들과 교류하는 동안, 어떤 점에서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지를 찾을 수 있으신가요?

(Malachi 1:1-8; 2:10-16; 3:6-4:6; Matthew 11:7-15)

## 2. Conversations 4-6: God's People Question His Justice (2:17-4:4)

In the second set of three conversations, God's commitment to justice is called into question. In 2:17, the fourth conversation, God's people are claiming that he approves of evil and has forgotten justice. The Lord responds by saying that he will come near to his people for a twofold purpose: first, he will purify them ("he will be like a refiner's fire or a launderer's soap") (3:2-3) and second, he will judge them (3:5). Previously, God had questioned Judah's love for him in the context of their questioning his love. So now, he questions Judah's commitment to justice, in the context of their questioning of his commitment to justice. He accuses them of robbing him – and, in doing this, they incur his curse (3:6-9). The Lord Almighty calls on them to return to being faithful to the covenant. To do this properly, they need to recognise his ownership of all things and bring their whole tithe into the storehouse (3:10). God calls on them to test him and they will find him faithful: "Test me in this.....and see if I will not throw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and pour out so much blessing that you will not have room enough for it" (3:10-11). As God had promised through Moses when the people entered the Promised Land of Canaan, covenant faithfulness will lead to blessing (Deuteronomy 30:15-16) whereas covenant faithlessness will lead to cursing (Deuteronomy 30:17-18).

### 2. 4-6 번째 대화: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공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다 (2:17-4:4)

나머지 세 개의 대화에서,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4 번째 대화인, 2 장 17 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악을 인정하고, 공의를 잊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가지 목적으로 그의 백성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심으로서 이에 대응하십니다: 먼저, 그는 그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3:2-3), 둘째로, 그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3:5). 하나님은 앞서서, 그의 사랑에 대한 백성들의 물음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유다의 사랑을 물으셨었습니다. 이제, 그는 공의에 대한 그의 헌신을 묻는 것과 관련하여, 유다에게 공의에 대한 그들의 헌신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것을 도둑질한 그들을 추궁하시며, 이러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합니다(3:6-9). 만군의 여호와와는 그들에게 언약에 다시 충실해지기를 청하십니다.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주권을 인정함이 필요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야 합니다(3:10).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를 시험할 것을 청하시고, 그들은 그가 신실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고...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3:10-11). 그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언약에 신실함은 복에 이르게 할 것인(신 30:15-16) 반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함은 저주를 야기할 것입니다(신 30:17-18).

In Malachi's fifth conversation (3:6-18), the people question God's commitment to justice. They say that serving God is pointless, for evildoers seem to be rewarded and the arrogant are blessed (3:15). However, rather than ignoring the righteous, God says that he remembers their reverence for him ("A scroll of remembrance was written in his presence concerning those who feared the Lord and honoured his name") (3:16). They will be preserved in the day of judgment (" "They will be mine", says the Lord Almighty, "in the day when I make up my treasured possession. I will spare them, just as in compassion a man spares his son who serves him" ") (3:17). The distinction between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is that the righteous serve God and the wicked do not (3:18).

말라기의 다섯번째 대화에서(3:6-18), 백성들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에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악인들이 보상받고, 교만한 자가 복을 받는 듯하기 때문에(3:15)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을 무시하는 것이라기 보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그들의 경외함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3:16). 그들은 심판의 날에 보호받을 것입니다("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의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3:17). 의인과 악인을 구별함은,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3:18).

(Malachi 1:1-8; 2:10-16; 3:6-4:6; Matthew 11:7-15)

What a predicament Judah find themselves in. They are in decline economically and morally. They question God's love and justice. They are subject to a foreign power – the Persians. And to top it off the covenantally faithful God is against them. Yet God, the Lord Almighty, graciously calls them to return to him: “Return 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says the Lord Almighty” (3:7b). And when they do, he will make them the envy of the nations: “Then all the nations will call you blessed, for yours will be a delightful land,” says the Lord Almighty” (3:12). Only through repentance – “the drainage system of the soul” (as one commentator has called it) – can Judah's robbing and swindling of God (and each other) be dealt with. They must repent for questioning God's love and commitment to justice.

유다가 처한 상황이 이 얼마나 곤경스러운가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력인 페르시아인들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서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게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청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3:7b).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열방이 그들을 부러워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3:12). 하나님과 서로의 것을 도둑질하고 사취한 유다는 어느 주석자가 명명한, 영혼의 배수 처리 장치라는, 회개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그의 헌신을 의심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Finally, the sixth conversation announces a coming day in which God's justice will be obvious – the Day of the Lord. Those who revere God's name will know fullness of life – eternal life – while “the arrogant and every evildoer” will become like stubble and be burned in the fire (4:1-3). The Day of the Lord will bring the vindication and triumph of the righteous. If we are God's people, belonging to him in Christ, then surely these words establish us and encourage our obedience. Malachi goes on in 4:4 to encourage us to “Remember the law of my servant Moses, the decrees and laws I gave him at Horeb for all Israel.” God's law is unchanged. Because God remains unchanged in his righteousness, so does the expression of his righteousness in the law remain unchang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Moreover, not only does God's law remain unchanged, so also does our obligation to live by that standard. This is conveyed by the word “remember”. The God who acts for our salvation is also the God who speaks his law that we might be holy as he is holy. If you claim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faith in Jesus as your Saviour and Lord, then you must heed Malachi's warning: “Remember the law” and do it.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대화는 하나님의 공의가 명백해지는 - 여호와와 그의 날이 이름을 공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삶의 충만함을 - 영생을 알게 될 것이나, “교만한 자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며 불살라 질 것입니다(4:1-3). 여호와와 그의 날은 의로운 자의 옹호와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속한 자라면, 틀림없이 이러한 말들은 우리를 확고히 하고, 우리가 순종하도록 격려합니다. 말라기는 4 장 4 절에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 가운데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그의 공의의 표현도 세대를 거쳐 변하지 않은 채로 있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규범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의무 또한 그러합니다. 이는 “기억하라”라는 단어에 의해 전달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그의 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주장하신다면, 여러분은 말라기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법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를 행하십시오.

(Malachi 1:1-8; 2:10-16; 3:6-4:6; Matthew 11:7-15)

### 3. The Coming of Elijah (3:1, 4:5-6)

Like the prophets before him, Malachi looks forward to God's coming. He is specific. He prophesies the coming of that "messenger" who will prepare the way for God – that is, John the Baptist, who will prepare the way for Jesus. Malachi writes, "See, I will send my messenger, who will prepare the way before me. Then suddenly the Lord you are seeking will come to his temple; the messenger of the covenant, whom you desire, will come," says the Lord Almighty" (3:1). He ends by saying, "See, I will send you the prophet Elijah before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comes. He will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ir children, and the hearts of the children to their fathers; or else I would come and strike the land with a curse" (4:5-6). This was the text the disciples were thinking of when they asked Jesus, "Why then do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Elijah must come first?" (Matthew 17:10). Jesus replied (referring to John the Baptist): "To be sure, Elijah comes and will restore all things. But, I tell you, Elijah has already come, and they did not recognize him, but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In the same way the Son of Man is going to suffer at their hands" (Matthew 17:11-12). John the Baptist came with a message of repentance – a wake up call to the nation, an urgent call to prepare themselves for the Day of the Lord.

### 3. 엘리아의 도래(3:1, 4:5-6)

이전의 선지자들 처럼,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오심을 고대합니다. 그는 구체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사자"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 즉, 이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 할 세례 요한입니다. 말라기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3:1)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4:5-6)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마 17:10)하고 물었을 때 생각하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뜻하며) 대답하시기를: "엘리아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아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마 17:11-12).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세지 - 열방에 전하는 경중, 여호와와 날을 대비하기 위해 그들에게 보내는 긴급한 외침을 가지고 왔습니다.

The Old Testament began with such promise, as God declared all his creation good. It ends here as Malachi declares that unless they repent, all God's people are under judgment. Indeed "curse" is the last word of the Old Testament canon. The remnant of God's people would continue to wait for God's salvation until "Elijah" appeared 400 years later. At that time a new covenant was inaugurated by the Lord Almighty whereby all who come to Jesus Christ by faith are forgiven and receive the Holy Spirit. Are you one of those who belong to Jesus by faith?

구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좋았다는 선포와 같은 기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여기 말라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됨을 선언함으로서 끝을 맺습니다. "저주"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는 400 년 후 "엘리아"가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만군의 하나님에 의한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까?

No longer does true worship involve tithes and animal sacrifices – but rather the offering of oneself to God. Romans 12:1-2 defines the nature of true worship for the people of God's new covenant: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Malachi 1:1-8; 2:10-16; 3:6-4:6; Matthew 11:7-15)

approve what God's will is –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All the sacrifices of the Old Testament are made redundant by the Lord Jesus offering himself once for all. His atoning death made the old covenant sacrifices unnecessary. Under the new covenant, the offering of ourselves is now the only logical sacrifice. As we resist conformity to the secular world in which we live, our transformed living will come by the renewal of our minds – understanding God's new covenant and his will for us as we sit weekly under the preaching of his Word, as we share in our weekly/ fortnightly Bible study groups and as we read and meditate on the Bible each day in our quiet times. New covenant worship is regarding our whole lives as living sacrifices. Under the old covenant, one day, the seventh, was holy to the Lord. Under the old covenant, one of the twelve tribes – the tribe of Levi – was priests to the Lord. Under the old covenant, one portion in ten, a tithe, recognized God's ownership. But now, by contrast, under the new covenant, worship of God is our whole life – all our days are God's, seven out of seven. Now all God's people are his priests (for Jesus "who loves us and has freed us from our sin by his blood.....has made us to be a kingdom and priests to serve his God and Father" (Revelation 1:5-6), twelve out of twelve. And finally now all that we have belongs to him and is rightfully his, ten out of ten. May the Lord help us to give him true new covenant worship by offering ourselves as living sacrifices to him.

더 이상은 참된 예배가 십일조와 동물 제물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대신에 하나님께 자신 스스로를 드리는 것을 수반합니다. 로마서 12 장 1-2 절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을 위한 참된 예배의 본질은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의 모든 제물은 주 예수께서 모두를 위해 스스로를 내어드린 한번의 희생으로 인해 불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속죄의 죽음은 구약의 제물을 불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새 언약에서, 이제 우리 스스로를 드리는 것이 유일하게 타당한 제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적인 세상에 순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변화된 삶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서 일어날 것입니다 - 매주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매주 또는 격주로 성경공부를 함께하고, 매일매일 큐티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언약과 그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예배는 산 제물로서 우리 삶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제 7 일 하루가 주일이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열두 지파중 하나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십일조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는 대조적으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우리 삶 전체입니다 - 우리의 모든 날들, 칠일 중 칠일 모두가 주일입니다.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열두 지파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제사장입니다(계 1:5-6).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며, 열중의 열 모두 마땅히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사 우리가 산 제물로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참된 새 언약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Amen